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定價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印刷人 金東成 發行兼編輯人 金(?)

社說

警察部長會議에 對하야
當局者의 無定見한 告白

一

例에 依하야 十三道警察部長會議는 昨日부터 開催되엿다 朝鮮總督府의 政治는 警察政治라 稱할만큼 警察에 偏重되야잇서 現代警察國家의 本色을 가장 顯著한 形式으로 發揮하고잇다 그리하야 朝鮮은 恰然히 警察의 專橫舞臺인 觀이 잇게되엿다 그러타고 吾人의 立場에서 彼等의 定期的 會合을 重大視할 必要는 업는 것이다 그러나 今番會議에 總督 總監 下岡兩氏의 所謂訓示가 有하엿는데 그것은 적어도 그들의 朝鮮統治에 對한 代表的 意思로 看做할수잇는 것이다 만은 吾人은 이어 그들이 如何한 程度의 誠意와 心算으로써 朝鮮統治의 任에 當하고잇는 것을 了解하는 터이니 今日 그들의 態度를 取코자 안커니와 朝鮮의 現象에 鑑하야 너무나 無責任 또 無定見한 것을 看過하기 不能하야 이제 數言으로써 그들의 一考를 促코자 하는 바이다

二

彼等은 民心의 傾向을 論하야 逐年平靜에 歸한다하고 一般思想界의 動搖는 政治上 經濟上 憂慮할 諸種의 運動을 漸次擡頭케하야 擴大되여가는 同時에 民族運動과 關聯하야 자못 複雜한 現象을 呈하고잇스니 이에 對하야 妥當한 措處를 加하야 善導할 事에 言及하엿다 그리고 治安維持法의 威力으로써 寬嚴이 自在한 取締로써 豫防의 目的을 達할 것이라 하엿다 또다시 朝鮮人警察官의 職權濫用에 對하야 各般紛擾가 續出하는 터이니 이 積弊를 一掃하기에 致力할 事를 指摘하엿다

三

이와가티 無定見 또 矛盾撞着된 그들의 口吻을 忌憚업시 吐出하는 것은 진실로 그 厚顏 無恥를 冷笑할수밧게 업다 民心의 平靜은 엇더한 見地에서 云謂하는 말인가 이것이 彼等의 眞正한 告白이라하면 그들의 識見이 얼마나 固陋한 것을 알바이다 이것은 棟樑이 延燒되는줄 모르고 燕雀의 安樂을 喃喃自樂하는 것과 如하다 그들이 朝鮮統治에 對하야 何等의 定見도 誠意도 具之한 所以임이 明白하지 아니한가 보라 現下 朝鮮의 實相을 都鄙를 莫論하고 朝鮮人의 經濟生活의 根據는 日復日 侵蝕破滅되야 流離散亡하게 되는 그 數爻가 如何히 多數이며 또 各地에서 警吏의 橫暴 行虐이 如何하야 一般人民 特히 朝鮮人은 如何히 威脅에 苦悶 冤抑의 情을 품고잇는가 勿論 그들의 民心安定 生活向上의 標準은 朝鮮人의 그것에 集中되지 아니한 것을 遺漏업시 暴露함이 아닌가 그런데 警吏輩의 失態도 朝鮮人警吏에게 責任을 轉嫁한 吾人의 記憶에는 日本警吏들의 行爲는 不斷히 躲閃하는 바이다 그러나 吾人은 決코 朝鮮人이란 名目下에 朝鮮人警吏를 庇護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그들의 差別에 徹底한 心法의 所存을 揣摩함에 그치는 바이어니와 더욱히 治安維持法이란 新武器만으로 思想取締의 要諦를 作하고 何等의 定見이 無한 統治者로서의 그들을 向하야 頑敵을 許치 못할 것이다

四

언제나 彼는 彼이오 我는 我이니 彼等에게서 我等의 要望을 完遂코자 아니하거니와 彼等이 그 名을 朝鮮人民의 統治에 托하고 이와가티 우리의 生活에 何等의 顧慮가 無하거든 엇지 默過할을 得하랴 만일 政治 그것이 制度라는 偶像을 爲하야 存在한 것이 아니라 民生의 福利를 爲하야 存在하는 것이라면 그 意義가 那邊에 在한가? 民生의 福利를 蹂躪한다는 政治가 오즉 民族的 差別에만 解釋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吾人의 이와가티 叱出하는 苦衷은 畢竟 彼等과는 風馬牛이리라 吾人은 自救의 途를 取함에 積極的 決意 및 奮鬪이 必要함을 부르지지고 붓을 더진다

廣東政府風雲急
緊急巨頭會議를開催

(廣東二十日發) 不穩한 流言蜚語가 市內에 漲하야 何時戰端이 開할는지 難計인바 楊希閔、劉震寰은 二十日香港으로부터 歸東하야 胡漢民、王兆銘、江中稚、與大佐等과 直時重要會議를 開하엿는데 劉震寰軍이 聯合軍으로부터 武裝이 解除될는지 或은 政府에 反對할는지 兩三日中에 判明하겟고 唐繼堯出發의 報는 時局에 安靜을 投하야 政府는 一層危機에 瀕하엿더라

靑島罷業又復惡化
無關係日本人에게도暴行

(上海廿一日發) 靑島의 罷業은 昨今又復惡化하야 靑島에 잇는 日本人係業은 日本人에게外지 暴行을 加하는 故로 矢田上海總領事는 中國官憲에게 抗議를 提出하엿더라

在滿日人大會
對張氏聲明發布

(奉天二十一日發) 張作霖은 直隸戰後 日本에 對한 態度가 대관절 露骨的 侮慢하여 가서 日中間은 每事에 衝突이 되여 互相感情이 날로 離反하여가는 中이더니 今回의 日本義勇兵慘殺事件으로 日本側의 張氏에 對한 憤怒가 爆發하야 來二十五日 奉天에서 全滿日本有志大會를 開하고 張氏에 對한 聲明을 發할터이라더라

伊國勞働委員排斥
國際勞働會議에서

(제네바二十日發無電) 本日國際勞働會議는 伊太利의 파시스트黨勞働會議「레소니」氏를 엇던委員會에던지 參加식히지 안키로 決議하엿고 「치코스라바키아」外相「베네슈」氏가 同會議長에 選擧되얏더라

우氏英佛態度攻擊
루얼占領에反對를聲明

(베르린二十日發無電) 獨逸國粹領袖「우에스도·아프」氏는 英佛兩國의 態度를 攻擊하야「루얼」占領에 反對함을 聲明하엿고 又「케른」地帶의 撤兵及軍事監督의 撤廢를 高調하야 最後에 共和憲法改正의 必要를 宣言하엿더라

少壯華議會合
改選에大影響

(東京電) 二十日午後七時 少壯華族 德川義親、佐佐木行忠、南條□、酒井忠正、二荒芳德三伯、西尾忠方、伊東二郞丸、井上匡四郞의 三子、東鄕安、小畑大太郞、高木義寬、原田熊雄의 五男은 永田町村井吉兵衛氏邸에 會合하야 晩餐後 貴族院令改革에 伴한 貴族院의 態度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午後十一時에 散會하엿는데 當夜의 會合者가 貴族院三派에 亘하엿고 且院外者를 加하엿슴에 不拘하고 其意見은 大略一致하엿다 함으로 今後 貴族院의 改選에 就하야 有力한 會合이라고 觀測되더라

貴院改正
數日中公布

(東京電) 貴族院令改正에 伴한 多額議員選擧規則、帝國學士院互選規則은 二十二日閣議에 附議決定하야 裁可奏請後 數日中에 公布할터이라더라

殘留組發會式
三十日로延期

(東京電) 革中殘留組及政友脫會者의 新入小團體組織은 二十五日로 定하엿더니 鵜氏不在로 因하야 三十日懇親會를 開하고 交涉團體發會式으로 하야 當日宣言을 發表하기로하엿더라

中、土兩公使館
大使館昇格不遠

(東京電) 中國及土耳古에 잇는 日本公使館의 昇格은 畢竟一兩日中에 日本政府로부터 正式交涉을 하기로 하엿는데 中國駐劄大使에는 芳澤謙吉氏 土耳古大使에는 小幡酉吉氏가 昇任하기로 決하엿고 因히 土耳古大使館은「콘스탄지노풀」에 設置하기로 하엿더라

定例次官會議

(東京電) 二十一日의 定例次官會議는 午前九時부터 首相官邸에 開會、樺太利權問題에 就하야 經過報告가 有한後 各省事務를 協議하고 十時에 散會하엿더라

利權問題
四次官이協議

(東京電) 川淵外務次官、大角海軍、田大藏의 四次官은 二十一日次官會議散會後 首相官邸에 남어잇서 北樺太利權會社設立에 關하야 協議하엿는데 江木輸長으로부터 二十日北辰會의 橋本圭三郞氏와 會見한 顚末을 報告한後 次官으로부터 民間側과 會見한 模樣을 報告協議하엿스나 何等決定에 至치 못하고 十一時에 散會하엿다 同日 石油石炭兩會社의 創立에 關한 勅令은 旣히 作製完了하엿는 故로 二十六日의 閣議에 附議決定한다더라

田中大使赴任遲延

(東京電) 北樺太利權締結會社는 共濟警察條件에 對하야 政府와 當業者間의 意見이 容易히 一致치 못하야 解決이 遲延되는데 따러서 田中都吉大使의 赴任도 延期될 模樣이더라

薩哈嗹派遣軍
先發隊着東

薩哈嗹派遣軍의 軍政部電信隊鐵道隊等의 兵員將校 三百七十四名은 二十一日先發隊로 午前六時四分에 新宿驛着軍用列車로 歸着하엿다 輸送指揮官은 薩哈嗹派遣軍憲兵隊長 小山中佐이며 陸軍省第一師團東京憲兵隊出迎을 受하며 爲先步兵三聯隊에 入하엿더라

地質調查事業
機關完備計劃

總督府의 地質調査事業은 大正六年에 第一次一般的調査事業을 完了하엿슨즉 其時의 調査는 極히 短日月에 行하엿는 故로 鑛脈에 關한 基本調査를 除하면 殆히 學術的으로 無價値이엿스며 且利用的價値에 잇서서도 極히 貧弱한 것이엿다 그럼으로 總督府에서는 更히 大正八年에 第一期計劃十五個年繼續事業으로 爲主히 鐵道沿線 海岸線並主要物産地域의 基本的 地質調査를 開始하엿는데 事業은 常히 財政難에 關係되여 特히 今年度와 如히 僅僅四萬圓에 不過한 少額의 調査費를 計上하엿슴에 不拘하고 業績은 豫想以上으로 進捗되여 現在 九百平方里에 達하엿는데 調査完成區域은 二十數枚의 地質圖에 依하야 一般이 豫想키 難한 地下數百尺의 地層으로부터 斷崖絶壁의 岩質外지 恰히 手에 在함과 如히 明示되여잇스며 就中 溫泉調査 鑛脈分布狀態에 至하야는 特히 詳細히 調査되엿는데 此等의 地質報文은 米英佛露外十數個國의 學界에 紹介되여 事實上 世界的學術機關으로 漸次 認定됨에 至하엿다 한다 然이나 現今과 如히 經費難이여서는 到底히 第一期計劃조차 所期와 如히 遂行키 困難할 뿐아니라 特히 土地改良의 基本的 要素인 土性調査 或은 水利灌漑에 直面하야 利用에 適切한 地下水의 分布調査는 産業的으로도 喫緊事인 故로 十五年度에서는 調査機關의 完備를 期하며 所要經費의 增額에 努力할터이라고 當局者는 말한다더라

諸稅徵收現狀
十三年度中

京城府十三年度中의 地租徵收成績은 左와 如하더라

國稅 ▲調定濟額 百五十五萬八千七十七圓中 收入濟額累計 百四十五萬六千五十八圓이며 收入未濟額 九萬九千五百三十七圓인대 收入步合은 九割三分四厘로 前年度에 比하야 六分四厘의 增이다

地方稅 ▲調定濟額 三十六萬二百二十六圓中 收入濟額累計 三十五萬九千十二圓이며 收入未濟額 五萬千二十一圓이요 收入步合은 八割二分으로 前年度에 比하야 九分減

府稅 ▲調定濟額 百二十一萬六千五百九十七圓中 收入濟額累計 百八萬五千八十五圓이며 收入未濟額 十二萬七千五百七十四圓이요 收入步合은 八割九分一厘로 前年度에 比하야 一分四厘의 減

學校費賦課金 ▲調定濟額 三十萬八千七百三十四圓中 收入濟額累計 十八萬五千四十九圓이며 收入未濟額 十五萬八千六百五十五圓이요 收入步合은 八割六分으로 前年度에 比하야 一分二厘의 減

學校組合費 ▲調定濟額 五十二萬八千七百六十七圓中 收入濟額累計 五十二萬八千百八十五圓이며 收入未濟額 五萬八千五十五圓인데 收入步合은 九割 一厘로 前年度에 比하야 一分二厘의 減

會衆激憤
求禮面民大會의 郡守의突然退場 問責하자고紛紜

全南求禮郡當局의 官有地不正貸付事件에 對하야 面民大會를 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去十六日午前十時頃에 求禮公會堂에 開催되엿는바 定刻前부터 모혀드는 群衆은 千餘名에 達하야 立錐의 餘地가 업는 盛況裡에 當郡郡守以下 多數한 來賓이 參席하엿고 警察署長의 引率한 正私服警官의 嚴重한 警戒裡에 鄭泰重氏의 開會辭와 金鍾鎬氏의 經過報告가 잇슨후 議長으로 李丙默氏、書記로 金鏞吉、金鶴洙氏와 査察로 林璟鎬、朴珠來、金宗鉉、趙正煥、尹喆赫五氏를 選定한 後 左記와 如한 決議가 잇섯다

◇議案
一、市場擴張의 件
一、官有地個人貸付取消를 要求할 件
一、費用의 限度及醵出方法의 件

◇決議事項
一、鳳東里市場附近幾個建物을 買受하야 市場을 完全히 擴張할 것
一、鳳東里官有地(驛址倉敷地)의 個人貸付를 取消하고 市場에 編入할 것을 郡當局과 道當局에 要求할 것
一、市場擴張所要費用의 三分의 二는 求禮面의 賦課로 하고 三分의 一은 其他各面에 義捐을 得할 것 但 費用金額은 實行委員에게 一任할 것

實行委員 金性權 姜親秀 尹錫奎 松□□ 鄭泰重

그다음에는 實行委員으로부터 鳳東里官有地貸付事件에 對하야 何한 까닭으로 市場에 有한 貸付地를 市個人에게 貸付하고 市場으로 쓰겟다는 正貸付로 取消하엿스며 또는 不當한 賠償을 要求하는 것은 不當한 일이라하야 議論이 紛紛한 中 郡守 朴壽崑氏는 郡屬一行과 突然히 退場하엿슴으로 一般會衆은 더욱 憤慨하야 問責委員을 選定하야 郡守에게 問責하자는 提議로 場內의 空氣는 매우 緊張하엿스나 仲裁로 保留하기로하엿다더라(求禮)

鳳山面 靑年學院曙光
三氏熱誠으로

黃海道鳳山郡鳳山面 松峴里에 잇는 鳳山靑年學院은 同地教育家인 朴作燕、韓宗熙兩氏가 無産兒童을 教育키 爲하야 從來로 經營하야오든 學院이 財政困難으로 客年中에 存廢의 問題가 잇섯슨바 當地 崔貞爽氏가 院長에 就任한後 熱誠으로 活動努力한 結果 該院學父兄은 勿論 該地人士는 該院의 教育熱誠을 感하는 同時에 前記三氏의 熱誠을 讚揚不已한다하며 同情金으로써 維持하게되엿슴으로 地方有志諸氏의 同情金을 寄附한 人士의 氏名은 如左하다고(鳳山)

趙鎭元 洪遇弘 各十五圓 朴仁和 本郡知事石鎬錫 河合正雄 各十圓 李奎永 金宥根 申鉉文 [illegible] 各三圓 外五十餘名

馬鎭庭球
但月桂冠은結局朝鮮靑年

慶南馬山日本人靑年團庭球部主催로 馬山朝鮮各官公署銀行會社學校及民間側을 網羅하야 지난 十七日午前十時부터 新馬山蓬萊小學校庭球場에서 馬鎭庭球大會를 開催하얏는바 參加數는 十四組中 大部分은 日本人側이며 其中朝鮮人側에서는 馬山商業學校一組와 馬山靑年會側에서 一組뿐이엿는데 馬山靑年會側 朴根伊、朴良辭君은 馬鎭一流의 敵軍을 突破하고 連戰連勝한 意氣衝天의 其實로 一般觀衆의 눈을 놀내게 하엿다 最初부터 偏黨의 마음을 가진 日本人側에서는 自己네의 實力이 劣等함을 不拘하고 無理한 應援과 不公平한 審判은 職士로하야금 火線이 점점 激烈하야 一時는 場內의 空氣가 매우 險惡하얏스나 百折不屈의 精神으로 最後外지 싸우는 朴良辭、朴根伊君은 四對二로 優勝을 占領하엿다더라(馬山)

中和郡에電燈
來七八月부터

中和邑內有志諸氏가 去十九日本郡廳에서 協議한 結果 來七八月에는 電燈을 架設할 豫定이라더라(中和)

基靑週年紀念 新義州

第二基督靑年會에서는 來六月六日下午七時半에 公會堂에서 創立一週年紀念式을 擧行하고 繼하야 少年少女雄辯大會를 開催한다는데 多數參加를 바란다더라(新義州)

白川救世軍營落成

黃海道白川邑碧瀾里新谷救世軍에서는 그 營門新築落成式을 二十二日午前十時에 擧行한다는데 當日少年部의 音樂과 歌劇도 잇서 盛況을 이루리라더라(白川)

安靑議事會 安東縣

安東靑年會에서는 去十九日午後七時에 安東貿易會社樓上에서 議事會를 開催하고 議長 李龍奎氏 司會下에 各部報告가 잇슨後 委員李熙遇氏 辭免에 依하야 朴尙根氏로 補選하고 休會한後 簡易한 茶菓로써 懇親會가 잇섯고 同十二時에 閉會하엿더라(安東縣)

◇新郎新婦 去十三日下午二時에 京城培材高普를 卒業한後 方今 南京金陵大學에 在學中인 金海鎭君과 京城梨花女子高普를 卒業하고 方今 碧瀾新明學校에서 教鞭을 잡고잇는 金如珠(三)孃은 當地耶蘇教禮拜堂內에서 崔泓柱牧師의 主禮下에 結婚式을 擧行하엿다고(碧瀾)

尼山學院의曙光
校舍를新築 有志諸氏의義捐으로

江華郡下道面尼山學院은 元來校舍가 狹少하야 志願兒童을 到底히 다 收容할수업슴으로 매우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昨年 多數有志의 熱誠으로 約三千圓의 巨額을 드리여 二十八坪의 校舍를 新築하고 去五月七日에 盛大한 落成式을 擧行하얏는데 建築義捐諸氏는 左와 如하다더라(江華)

金三百圓 朱潤昌、二百三十圓 李泰榮、百七十圓 [illegible]、三十圓 [illegible] 外 多數

本末寺總會
奉恩寺 諸般事項決議

去十五日下午一時 廣州郡彥州面大本山奉恩寺庭內에서 奉恩寺의 本末寺 第十五回定期總會를 開催하얏는데 會員은 十八人에 達한바 李混惺氏司會로 開會하얏는데 住持와 및 其外에 參席한 五個寺住持外 仁氏의 昨年度決算報告가 有한後 左記事項을 施行中 敎育에 對한 諸氏의 熱辯으로 長時間討議한後 各寺로부터 補助하기로 決議하고 其他事項은 滿場一致의 可決로 同下午五時에 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敎育에 關한 件
一、財團法人出資에 關한 件
一、布敎에 關한 件
一、本年度負擔金及寄附金分配에 關한 件
一、說戒에 關한 件
一、安居에 關한 件
一、托鉢에 關한 件
一、其他事項

救濟講演
十八日扶安에서

去十八日夜八時頃부터 全北扶安에서는 마참 救濟品分配次로 當地에 到着한 朝鮮勞働救濟會執行委員 徐廷禧氏를 招聘하야 饑饉救濟講演을 開하엿는데 『同胞의 살길』이란 題로 徐氏의 熱辯과 『人生의 本能과 그 生活』 이란 長廣舌은 五百群衆의 胸腔에만 흔들어줄 뿐만아니라 同情의 義捐으로 一個人으로부터 百圓其他 二團體가 잇고 同十一時頃에 無事閉會하엿다더라(扶安)

寶城郡內에서
少年團創立

全南寶城郡內少年團은 去十五日當地靑年會館內에서 創立總會를 催하야 安鍾厚氏司會下에 李秉咸、李泰洙氏의 就任과 將來進行에 關한 諸般事項을 決定하고 宣言綱領과 當選任員은 如左하다고(寶城)

一、地方少年의 積極的 團結을 期함
二、團員의 德智體育의 發達을 期함
三、勞務의 美風을 涵養함

團長 李容度 總務 安鍾厚 各部長 孫德均 蘇鍾烈 申仲楠 姜栢奎 康玉鉉 顧問 靑年會長 李秉咸

釜山에도自轉車競技
優勝은京城趙君

日本人으로써 組織된 釜山輪業組合의 主催로 去十六、十七兩日間에 大正公園에서 自轉車大競走會를 開催하엿는데 當日最優勝者는 京城趙富湧君이라더라(釜山)

처음보는娼妓運動大會

去十八日正午부터 馬山에서 開催 馬山遊廓主催로 상여(?)에서 馬山娼妓大運動會를 開催하엿는데 當日運動會員은 七十餘名에 達하야 大盛況으로 散會하얏다더라(馬山)

金靑總會流會
來七月七日로延期

金泉金陵靑年會에서는 去十九日에 定期總會를 開催하라다가 諸般事情으로 因하야 開會치 못하고 卽時幹部會를 開催하야 來六月七日에 更히 總會를 召集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金泉)

南鮮蹴球大會에
參加團體十餘 大盛況을豫期

釜山水晶靑年會主催로 來二十四、五兩日에 開催될 第二回南鮮蹴球大會는 벌서 十餘團體가 參加하야 大盛況을 豫期하는데 아즉 參加치 못한 團體는 速히 參加하여주기를 바란다더라(釜山)

釜山上水道의擴張에對하야
釜山府尹談

釜山府現在水道의 給水能力은 遠見水源地와 法基里水源地를 合하야 十二萬立方尺 卽 大約三萬人分에 對한 것으로써 現在施工中의 高遠見水源地의 擴張은 僅僅約二萬立方尺 卽 五千人分을 增加함에 不過하다 그러나 府勢의 趨向은 날로 增加하야 最近에 와서는 約八萬五千의 人口를 有하며 그 太半은 給水를 밧고잇스나 現況으로 推測컨대 十年後에는 七萬、二十年後에는 十二萬의 人口에 給水케 될 緣이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給水能力의 根本的 增加策을 講究치 아니할수 업나니 그런 故로 府에서는 北便七里의 地點 梁山東面法基里의 溪流에 水源을 求하며 貯水地를 設하야 府內에 導水하려는 計劃이 잇스니 그 量은 一日에 二十五萬立方尺으로써 現在의 것과 合하면 三十九萬立方尺이 될것이다 그 工事系統의 大體는 다음과 갓다

一、水源地 法基里에 堰堤를 設하고 二百八十萬坪의 集水面積을 得하야 水深四十尺의 貯水池를 設하고 여기서부터 自然流下에 依하야 府內에 送水케 하며

二、淨水場 貯水池의 下部適當한 地點의 大那內에 沈殿池、濾過池、淨水池等을 築造하야 水量을 淨化케 하며

三、送水線路 淨水池와 府內의 配水池間을 十八吋의 鐵管으로 連結하며 그 距離 一萬四千五百間 落差百六十尺을 山街道에 沿하야 南下하야 東萊를 經하야 府內水晶洞에 至하게 할것

四、配水池 水晶洞의 山腹을 切均築造하되 그 容積은 府內의 給水를 調節함에 適當토록 하며

五、配水管 府內의 配水管은 二十吋八百間、十八吋八百間、六吋以下五千間을 布設하야 旣設管에 連結하야 府內給水의 普及에 期할 것이다 이 施設을 實施하랴면 約二百五十萬圓의 工費를 要할 것인데 釜山의 膨脹에 適應한 計劃인지 否인지는 總督府의 批評研究를 得한後 實地測量을 繼行하야 方今 愼重히 調査하는 中이다 洛東江水를 經濟的으로 導水함이 專門的見地에서 보와 可能이라하면 港灣으로 生命을 삼는 釜山이 다시 工業地라하고 보와도 가장 重要한 素質을 具有하엿다 할수잇스니 自由港區論과 相俟하야 釜山의 將來는 實로 多幸하다 할지라 然이나 洛東江의 流水를 利用할 可能性의 有無는 總督府의 調査에 依할밧게 업슴으로 産業第一主義의 現時에 잇서서 特히 木府의 調査 切望하는바이라 어찌 釜山府의 幸福뿐이리오(釜山)

平南道內 學年延長
道當局은不許

平安南道에 잇는 普通學校中 平壤、鎭南浦各郡廳所在地의 學年制度는 六學年制이나 其他는 全部四年制임으로 各地到處에 學年延長의 運動이 猛烈하엿스나 道當局은 如何한 理由인지 이 要望을 顧치아니하고 小學年延長은 上級學校撤廢를 前提로 하여야 된다고 主張하는 모양이라더라(平壤)

育英校生盟休
無資格敎員問題로

平南德川郡蠶上面棲鶴里育英義塾에서는 生徒十餘名이 一時에 同盟休校를 하엿다는데 原因은 幹部들의 意思衝突로 無資格한 敎員을 採用함이라더라(德川)

全順安主日校
運動會를開催 來二十日에

今月三十日午前九時부터 順安西川江邊에서 全順安主日學校第二回聯合運動會를 開催한다는대 當選된 委員은 如左하다더라

會長 石根玉 總務 金興觀 會計 申永敏 審判 金榮源 外四人 接賓部 全學麟外十人 衛生部、設備部 員各若干人(平原)

平壤測候所
經營移轉發表

平壤測候所는 從來朝鮮總督府觀測所附屬測候所이엇스나 去四月一日부터 平安南道地方費로 經營하게되야 平壤測候所라고 名稱을 變更한 事를 十九日附로 府布하얏더라(平壤)

말성되는 間島蹴球와
恩眞軍의抗議로

◇大會第二日經過

一、第二回豫選戰(靑年團)

北山靑年對恭虎
成績으로 北山勝

當日은 決勝日임으로 觀衆은 前日보다도 雲集하야 無慮七千名에 達하얏다 前半에 八對四 後半에 六對五로 北山軍이 得勝

公敎靑年對信敎靑年
成績으로 公敎勝

兩軍이 모다 處女出戰이엇다 前半에 一對一 後半에 公敎軍이 一點을 엇게되니 公敎軍이 이기이다

恩眞學友對大成學友
成績으로 恩眞勝

恩眞軍은 이미 局子街强軍이오 且大成軍은 年來로 壯觀을 이루엇다 前年에 成績을 엇게되니 [illegible]

第二回豫選戰(少年團)
東興學友對樂民學觀

[illegible]

第三回豫選戰(靑年團)
恩眞對公敎

[illegible] 가得點一을지고 後半에二點을지게되다

樂民親睦會對北山靑年

樂民親睦會는 奮激하야 終始하려하엿스나 그러고 經驗이 豊富한 北山에 對抗하야 卒히 北山靑年會에게 壓倒되얏나니 [illegible]

◇靑年團恩眞學友團對樂民學觀
◇少年團永新少年團對東少年團

豫選戰經過는 大略이 報와 갓거니와 決勝戰까지도 當日舉行하려하엿스나 日暮하야 翌日(十日)에 繼續進行하려하엿는데 恩眞과 明東은 基督敎會의 學校인 關係上 日曜에는 出戰不可能이라하야 이것으로 代表者會議까지 召集하고 進行方針을 附議하엿스나 圓滿한 解決을 엇지못하고 幹部會議의 決議로 優勝旗는 日曜日競技進行을 要求하는 樂民親睦會及永新少年團에 授與하고 마럿는데 恩眞團에서는 어데까지든지 幹部의 無理를 責하는 同時에 告訴를 提起할터이라는바 一般은 자못 注目중(間島)

華川靑年總會
任員改選、規則改正

華川靑年會에서는 去十七日午前十二時에 華川公立普通學校에서 臨時總會를 開하고 規則改正任員改選及其他重要한 事項을 討議하고 會員의 熱烈한 講演과 來賓의 感想談이 有한後 同午後七時에 無事히 閉會하엿는데 新任幹部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會長 姜友三 副會長 安鍾德 評議員 李澤俊 沈雲澤 金演楙 金永錫 潘泰植 成炳昇 全龍根 全寅懋 洪五星 張台煥(金化)

金化에幼年學園
李氏와敎會를稱頌

江原道金化郡金化面邑內里李英鍾氏는 元來부터 敎育에 熱心할으로 누구나 氏의 特志를 無不稱頌하는바 最近에는 當地에 幼年敎育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생각하고 當地耶蘇敎禮拜堂에 幼年學園을 設立하고 熱心敎授하는 中 基本金이 不足함으로 同校會側道師裴基俊氏와 協議한 結果 米國宣敎部에서 每朔十五圓의 同情을 어더 가는中 幼年學園은 漸次基礎가 구더가는 中임으로 一般은 李氏의 熱誠과 當地敎會의 誠意를 讚頌한다더라(金化)

新沙里의敎育熱
男女學生의熱心 俞、鄭兩氏의苦勞

廣州郡廣州面新沙里에는 本來부터 敎育機關이 업서 一般은 遺憾으로 생각하여오던바 有志李鍾麟、俞鄭兩氏는 中央基督敎靑年會農村部에 交涉하야 農民夜學을 設立하고 現在學生八十餘名을 募集敎授中인바 이 所聞을 드른 그곳 一般婦女들도 하로밧비 男女와 가티 學問을 배워 人生다운 生活을 하여야되겟다는(?)

定平火災
三湖救濟會 十七日에組織

咸南三湖耶蘇敎會에서는 지난 十七日에 過般定平火災罹民에 對하야 救濟會를 組織하고 方今 救濟金募集에 努力하는 中이더라(三湖)

甲山에喜雨

咸南甲山郡은 今春以來에 旱魃이 太甚하야 水稻播種은 結局하고 一般雜穀播種도 못하엿슬뿐만 아니라 多少開畓된 것도 都是乾涸하야 收穫이 업슬듯한 中이더니 去十八日에 甘雨가 降하엿슴으로 遠近人民은 깃봄을 마지 아니한다더라(甲山)

下岡氏의頭腦

投稿歡迎 啄木鳥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作者氏名 明記)

◇世人은 말하기를 官吏된 者의 頭腦는 化石이라한다 또는 이르되 官僚輩는 自尊心의 總所有者라한다 勿論이는 不完全한 法語가 아니나 이는 專制政治時代의 그것을 말함이다 그러면 所謂 現下朝鮮官吏된者들의 頭腦는 엇더한가?

◇나는 今月十八日부터 總督府에서 開催한 各道知事會議에서의 下岡政務總監의 訓示一節을 紹介하라한다

常이 國民을 愛護 善導하야 其徒 至한 思想을 涵養하고 有害한 外來思想을 바더들이지 안토록함에 努力하야 國家의 大勢에 鑑하야 常에 國家의 使命을 自覺식혀 彼等으로 하야금 不逞의 心을 忍起할 餘地가 업도록 各位는 地方民心의 指導扶掖에 努力할事

◇이것이 下岡氏의 自信잇는 眞意吐할인지 或은 政務總監으로서의 例에 依하야 例와 如한 形式의 一編의 官僚式訓示 그것인지 그는 門外漢인 余로서는 氏의 腦髓를 付度키 不能하지마는 如何間 氏의 政見思想及 그 誠意를 推測함에는 足한가한다

◇그런데 氏는 日本政界로서는 手腕力量이 併富하다고 旣히 世評이 잇다하며 하물며 多年野에 在하야 民衆과 接觸이 多하엿기 때문에 엇던 程度外지는 時代思想의 趨勢를 理解한다는 또다시 말하면 此(?)非官僚의 政治家라는 人의 差言이 有함에 其爭面是人으로서 엇지 ...

◇엇더한가 下岡君이여 殿下는 思想을 禁之할者이 ...? 그누구인가 不逞의 心을 忍起할 餘地가 업도록 指導扶掖하는 者는 그누구이며 不逞의 心을 忍起할 餘地가 업도록 指導扶掖하는 것은 그무엇인가? 나는 말하노라 君이 아모리 脫俗한 非官僚式 政治家라 稱할지라도 또한 自尊心이 豐富한 官僚心理로化石된 頭腦의 所有者인 것을

◇時代는 變遷하엿다 따라서 政治家의 形式도 變하엿다 我半島의 民度비록 先進國의 그것에 따르지 못한다하여도 惟命服從인 專制治下의 民의 域을 脫하엿슴은 已久이다 君이 高呼로 信하는 所謂朝鮮統治의 要諦라는 錢則 속에 二千萬大衆을 잡어너으라 함에는 徒勞가 多한 思夢에 不過할 지니 能히 大勢의 歸結하는바를 조차 그의 善處함이 잇서라(一野人)

後場突返
仁川期米 第二報 (五月廿一日)

前場 阪地三十九圓八十錢 止와 共히 三十六圓八十九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後場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九圓八十九錢인 四丁反高를 受하고 卅六圓八十八錢에 場을 始한 後 阪地四節 九十五錢에 場을 入하야 三十七圓外지 跳返할 새 買氣益益旺盛하야 阪地五節四十圓으로 十錢에 止場으로 結局十五錢에 高하고 六節은 九錢으로 高低의 差는 二十七丁이며 阪仁의 鞘는 二百九十五丁이더라

大阪場況
二十一日後場

今後場阪地場況은 地場買로 三十九圓八十九錢에 場을 始한 後 株式筋의 賣物을 消化하야 九十五錢으로 跳返하야 새 買氣益益旺盛하야 四十圓으로 高聯하더니 結局은 四十圓十錢에 又復突飛하야 氣勢 헌 場을 止하엿다고

◇各地止價◇ 二十一日後止

	二十一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四〇、一〇	二六高
東京	四一、一七	一六高
兵庫	三九、七二	二九高
下關	四〇、二八	三八高
桑名	四〇、三九	三三高
夕後	四〇、四四	三八高
名古屋	四〇、〇五	二〇高
金澤	三九、三五	四三高
熊本	四〇、二〇	三二高
仁川	三七、一五	三五高

◇阪仁氣配◇

大阪 四十圓十五錢見當
仁川 三十七圓二十錢見當

◇各限俵合◇ 二十一日後場

當限(計 [illegible])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中限(計 [illegible])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先限(計 [illegible])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寸 歎◇ (松坡)

【高原】 郡民代表가 郡廳에 가서 講習所設置에 對하야 周旋하야 달라하니가 廳林庶務主任은 『日郡은 經由官廳이니가 外不知하야다』 經由官廳인 것을 아는 頭腦로는 변변한 酬酢

【德川】 去十八日에 公普校內에서 改潮社長 徐成烈云者가 『日鮮融和』에 關한 講演을 하얏는데 聽衆은 全部가 各官公署職員과 人民側日語能解者만 會集케하고 日語로 講演을 하얏다고 그러한 方法으로 宣傳을 하면 事半功倍가 될모양

◇

【咸平】 罹災同胞救濟가 到處에 잇는 이때에 李平□陽□主人翁은 『飢民을 救하는 놈은 미친놈이라』고 하얏다 한다 自己가 『죽도야지』 란 별명을 듯는 것이 憤하든 것이지

【錦山】 이것도 女子解放運動의 하나인지는 모르지마는 드러서 보지못하던 婦人某某는 自轉車를 타고 大路上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行次하엿다고 제발 分에 당신들의 子女를 보아서라도 맙시사……『아멘』

洪原救濟講演
雨天으로延期

咸南洪原勞働救濟會와 洪原靑年會主催로 去十九日에 洪原天道敎宗理院內에서 演士 姜仁澤、宋泳近南氏의 講演會를 開催할 豫定이엿스나 마참 當日에 雨天으로 因하야 不順함으로 延期하엿는데 二氏가 다시 歸洪하는 時에 講演會를 開催하기로 하엿다더라(洪原)

會寧樂團巡劇

會寧邑內에 잇는 會寧音樂團에서는 本月初旬에 巡廻演劇키 爲하야 現代의 風刺劇三十餘種을 가지고 出發하엿다는데 巡廻할곳은 淸津、羅南、鏡城、雄基等地이라더라(會寧)

共産黨青年軍과 高麗革命軍衝突說

共青死傷九名、革命軍即死七名

적군에게쪼겨온허승환일파가 공청회원이명을죽인새닭으로

작년십월에 고려혁명군 허승환(高麗革命軍許承煥)일파는로령 『취붕』에서 적군(赤軍)토벌을 당한후중국 동녕현하수포(東寧縣河水浦)디방『싼채구』(三岔口)로부터 동부약 사십리되는곳에가서 륙십여명이 일단이되야 동디에서 아편을재배하고잇든중 최근에 로령『취붕』공산당청년회원(共産黨青年會員) 김창욱(金昌旭)외 이명이 『싼채구』디방의공산당과련락을 취하기위하야 싼채구방면에 려행하든중도리어 허승환일파에게발견되야 총살되엿는바 이소식을 듯든취풍공산당청년회에서는곳 회원을 비상소집하야 복수책을 협의하든중도리어 허승환파이십사명에게 역습을당하야 청년회원오명이 잡혀갓슴으로 청년회원중에서는그사람들을빼앗고자 적군의원조를어더추격한바쌍방에서 총질을한결과 허승환의부하김동약(金東若)외칠명은즉사하고적군방면에도구명의사상자가낫다더라(모처착정보)

饑救金引受

홍원구제회에 사백원을주어

함남홍원기근구제회(咸南洪原饑饉救濟會)에서는 지난십일일에 조선기근구제회분배위원 강인택(朝鮮饑饉救濟金分配委員 姜仁澤)씨가옴을 맛기위하야각단데급 각신문지국의 련합으로성대히환영하야 십구일에는 홍원청년회(洪原青年會)와동아조선량지국(東亞朝鮮兩支局)주최로 홍원 송도공원(洪島松島公園)에서 간단한다화회가잇고동일오후여섯시에 조선일보 홍원지국내에서 홍원기근구제회에서분배한 사백원을 인수하는데동아조선 청년회각대표 십여명의립회아래에서 무사히 인수하고그인수한돈사백원은동원기근구제회에서가지고분배하기로하엿다더라(홍원)

勞農委員四氏 檢事局에送致

사음조뎡현의고소로

전북태인로농회위원(全北泰仁勞農會委員)오광(吳光) 김부곤(金富坤)송순영(宋舜榮) 김학규(金學圭) 제씨는 소작쟁의사건으로 전북신태인역전(全北新泰仁驛前)에거주하는 동덕과 민대식(閔大植)두곳의 사음으로잇는 조뎡현(趙禎顯)이 정읍당국에고소하엿든바 이주일동안이나 취됴중이더니 필경지난십사일에정읍검사국으로송치하엿다더라(태인)

福田大將을狙擊한 大膽無敵한和田

공판뎡에서증거품권총을보고 완구가티보인다고하며빙그레

大杉榮의復讎的計劃

세상의이목을놀내든복뎐아태랑대장(福田雅太郞大將)암살음모사건의무정부주의자화뎐구태랑(和田久太郞)이하 촌목원치랑(村木源治郞)고뎐대차랑(古田大次郞) 창지경치랑(倉知敬治郞)일파의폭발물취톄법 위반사건은예심이종결되야이십일일오전열시부터동경디방재판소대법뎡에서우야재판장(宇野裁判長)의심리로개뎡되엿는데동사건의대개를말하면화뎐일파는자긔의수령으로아는대삼영(大杉榮)이감박대위(甘粕大尉)에게살해된것은 복뎐대장의 교사한것으로생각하고 복뎐대장 전가족을몰살하고자 하든것인데 동경재판소는 이른아츰부터 방텽자가들이찻고 경관배여명의 엄중한경계가잇서 긴장미를 띄엿섯고 우야재판장의심문에대하야화뎐은 원긔가충만한말소리로 복뎐대장암살에관한수단방법등을말하고 예심됴서의사실을 긍뎡한후증거품됴사를 할지음에 복뎐대장을 저격할때에 쓰든권총을 보며서지금생각하면 이따위권총은 완구와갓다、고하며조소덕우숨을띄우서 대담무덕한 태도를 보이엇다하며정오에휴게하고오후에계속개뎡하엿다더라(동경뎐보)

日本人에게도 天道敎宣傳

동경텬도교인대회에서

지난십칠일일요일오후한시부터 동경에잇는 텬도교인들은 그종리원소재디(宗理院所在地)인소압뎡궁하(巢鴨町宮下)일천오백팔십일번디 회관에 모히여림시교인대회를열고여러가지신구사항을결의하엿는데 그중새사업으로는일요강좌(日曜講話)와로동야학강습회(勞働夜學講習會)를 열기로할것과텬도교의지난연혁과주의강령등의인쇄물을일본말로만드러 이것을 일인에게도배포하야 그교의주지를 널리세상에선전하기로하고 다음에 종리사의보결선거가 잇슨뒤 동네시에산회하얏다더라(동경)

東京全市에 非常線을緊張

一夜收穫七千餘件의多數

강절도만이십여건이나되고 불량소년이일천륙십건이상

여러가지풍설로작금동경시텽에서는그취체에혈안을불켜뜨고작일오전뎡시로부터새벽까지관하각서의총동원을행하야전시에비상선을늘이고활동한결과그그물에걸린것은 상야、상석、축디、본향、본부사、부판、대총、품천、뎡교、구호(上野、象潟、築地、本鄕、本富士、富坂、大塚、品川、淀橋、龜戶)의각서로 불심한뎜이잇서 심문을한것이 약이천건이오 강절도현행범이 이십건이오 부랑죄가 륙백건이오 불량소년으로 취됴한것이 일천오백륙십건이상이라더라(동경뎐보)

消防隊長을告訴

구타상해죄로

경의선차련관시내(京義線車輦館市內)에서대륙고무화장사를하는양무엽 김경록(楊武葉 金景錄) 두청년은 룡천남시(龍川南市) 시내에잇는소방대장을상대로신의주 디방법원에 진단서를첨부하야상해죄로고소를데기하얏다는데 이제그 자세한내용을듯건대지난십이일에고무화상고무신을파는중 엇던자가 와서시장세를내라고함으로권긔두청년은 시장세를 주엇는데그후에 또내라고함으로 김경록이가 악가다주엇는데웨또달라고하느냐 한즉 와락달려드러 싸홈을하랴하나 김양두청년은 참어오는중 그곳소방대장이란자가와서김양두사람을 무수히따려 중상을당하게한것이라더라(차련관)

不知去處된 七十老婆

세상비관하고 홀여집을떠나

평양선교리(平壤船橋里)백십칠번디 김영세(金永世)의 장모김씨(金氏)(七?)는 아들이업는 혈혈단신으로의지할곳이 딸의집밧게업슴으로 그사위김영세가 벌어주는옷과밥에 이때것 잔명을보존하여오던바 지난십이일오전열시경에 홀연히 집을나간후소식이업슴으로 소관경찰서에 수색원(搜索願)을데출하얏다는데그이웃사람들은말하기를생활난으로생긴염세비관인까닭이라더라(평양)

河東爭議는解決

地稅안준다고移作한것

로농회간부의활동과 군경당국의알선으로

하동군악양면 뎡동리(河東郡岳陽面亭東里) 조재희(趙載熙)와 진주군평거면귀곡리(晉州郡平居面貴谷里) 정태석(鄭泰奭)과 전남구례군 토지면 랭천리(全南求禮郡土旨面冷川里) 김택균(金澤均)김성균(金成均)김종현(金鍾顯) 등은 하동군 적량면(河東郡赤良面) 에토디를 두엇든바종래로소작인의불평이만튼중작년에이르러서는소작인이디세를아니준다는 까닭으로 말미암아전긔 다섯디주의논이백이십칠두락을 떼여소작인의 호소가 만흠으로 적량로농회(赤良勞農會)에서는 이것을 환작하야 주기위하야백방으로 노력하야 왓스나종시 해결이 잘되지 아니하고 농긔는 점점촉박하야 오매 소작인의 호소는 나날히 심하야감으로 적량로농회에서는 부득이 군텽과 소관주재소에 교섭한결과두당국에서는지금 **파멸중에** 잇는농촌소작인의 생활을보아 해결식히기위하야일편에군、경、면、주재소(郡、警、面、駐在所)당국에서 출장하야 신구소작인을 모아노코 두편의 량해를 어더서대부분은 구작인에게환작케하고혹은신구작인의 생활뎡도에 의지하야서 로절반식양보도하며전부원만히 해결되엿다더라(하동)

醉中에傷害致死

작일오후세시회원뎡에서

부내 본뎡오뎡목(本町五丁目) 이십번디 신영권(申榮均)(二九)은 이십일일 오후세시경에 대화뎡(大和町)이뎡목 리헌백(李憲伯) 의집에잇는고재근(高在根) 본뎡사뎡목(本町四丁目)뎡상수(丁相洙) 두명과가티화원뎡(花園町)삼십칠번디리경덕(李敬德)의집에서술을사다가세사람이난호어먹은후다시신영권은 고재근에게대하야 술을한잔내라고이말저말하다가싸홈이되야 신영권은 발길로고재근의 여구리를차서 즉석에서죽이엿는데 이급보를드른 본뎡서에서는 서원이급행하야 가해자를당서에인치하고상해치사죄로목하엄중취됴중이라더라

石谷會長出獄

소작쟁의사건으로 팔개월간고생하고

전남광주(全南光州) 석곡면(石谷面)소작회(小作會)회장 최제형(崔濟衡)씨가소작쟁의사건으로광주 형무소에서 팔개월동안복역중이든바만긔되야지난이십일에 출옥하엿는데 동면소작민은거리가 삼십여리나 됨에도불구하고 백여명이 환영하기위하야왓섯스며 동일오동회장의환영회가 성대히 열렷다더라(광주)

面民代表對 郡守交涉

일부는해결 일부는아즉말경

고원군민대회집행위원(高原郡民大會執行委員)들은 지난십팔

학교에대한오년이부제(五年二部制)실시할것만을 해결하고그이튼날 십구일에 역시그와가튼 교섭을 진행하야 겨우고등강습소(高等講習所)설치 의건을 해결하고 그남어지 요구건은전부 응치안을뿐아니오 농회회측(農會則)과동부렴탑까지 거절하얏다는데 그거절하는 리유는 그내막에무슨 곡절이 잠복한것이라고 일반이 추측하는바이며 이에대한 동군민대회집행위원 모씨는말하되 대회에서군텽에데안한것이여섯가지조건으로 그중에 두가지는원만히해결되얏스나그밧게는전부로거절하얏슬뿐아니라군농회회측과부렴탑까지거절함은군민대표의자격을무시하는것이며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그내막에는 무슨 조처못한 사실이 숨어잇지안코는 그럴리가업나생각하며 여간지금에잇서서는 모든것을 철두철미히 판명할때까지는 힘잇는데로도텽까지가보려고 불일간출발하겟다고하더라(고원)

饑饉餘에成狂

不忍聞不忍見의慘劇

배가곱하못살겟다하며 칼로안해의살을비고자

김천군봉산면 신동뎡두채(金泉郡鳳山面信洞 鄭斗采)(四五)는원래가세가 적빈하나 성질이순량함으로 동리에서 칭찬을바더오든터인데 작년의 비참한흉재가 적빈한 그의신상에 긔근의위압을더하야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멧낫가족이 삼춘을겨우 생명을지탱하야 왓스나 빈한에못견듸인그의정신은 긔달초부터돌변하야 이상이생겨 메칠전에 자긔안해를향하야 배가곱하 고기라도 먹어야 살겟다하며 소도(小刀)로 사랑하든 처의살을 떼여먹으라고 달려들엇는데 그처는간신히 몸을빼처서 어린두자식만다리고 이세상의 공평치못함을 저주하며 부득이 친당으로도라가고 정두채는 로상에방황하는것을 동리사람들이 불상히넉여 방금구호하는 중이라더라(김천)

生活難으로縊死

솔나무에목을매여

수원군장안면 어은리(水原郡長安面漁隱里)에사는 림칠성(林七星)(四四)은지난십칠일 오전구시경에솔나무에목을매여죽엇다는데그죽은원인을들건대갈수록생활은곤난하고압헤닥처오는주림을견댈수업슴으로죽든날아츰에 그안해되는라씨가 멍석이나메여팔어 쓰자커니 말자거니내외간에 말다툼을한후 한숨을지으며 무엇을생각하는 모양이더니그와가티죽엇다더라(수원)

一洞數百名의饑饉

유지의열심활동한결과로 좁쌀사십포대를어더구조

함남홍원군보청면 송평리(咸南洪原郡甫靑面松平里)는 사십여호의인구 이백여명은 본래농촌으로 백사디(白沙地)에 곡식을심어년년히 하늘만 치어다보아비가떼마처 오기를 기다리든바 전에보지못하든 작년한재로 인하야 그곳이백여의 농민들은곤난이막심한중 근근히 생활을하야오든터인데 대개는 남의소작말지기나 지어먹든터에

그와가튼 심한재앙을낫나겨울을동안은 그럭저럭 지내왓스나 춘궁을당하야 먹을것이업서어린아이들은 조석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붓들으며 먹을것을달라고 부르짓는소리에 부모된그이들은 구곡간장이 다녹는것가트나 엇지할도리가 업서서그동리 유력한 함태윤(咸泰潤)최동가(崔東?)함태길(咸泰吉)외 여러사람은 지금까지 농촌에잇서농사나

지어먹을 쌘이오 어장(漁場)이나 배타고 고기잡는일이라고는 꿈에도하야보지 못하엿지마는 뜻밧게 긔근에싸저잇는부모처자를 먹여살리고자 본면무계리(茂桂里)에잇는일인의경영하는향화어장(香桂漁場)이라는데가서얼마의동정을빌다고하얏스나그어장에서는사람이이미다모집되엿는바더는사용치안흠으로할수업시집에도라오면

어린아이 들의배곱하우는소리를 듯을길업서 할수업시 그대로 도라왓는데 그부인이된이들은 남편이돌아오니 쳡쳡히 역엿스나 철업는아이들은 닷자곳자로 먹을것을달라고 우는데 그광경은 참아눈으로 볼수가업시 비참하든중 지난십팔일에그동리 유력한 조병화(曺秉華)김두찬(金斗讚)외여러

사람들이 협의한결과에 홍원읍내덕흥뎜(洪原邑德興店)에가서 좁쌀사십포대를 가저다가 먹을것을 구하든그들에게 난호와주엇다는데 일반은 그들의성의를 매우칭찬하더라(홍원)

捕虜의몸으로 興京에서京城까지

중일군경에포위되야 질흥가티몰아봉텬에

玄益哲의罪는果然무엇(一)

중국길림성흥경현(吉林省興京縣)에잇는 본보지국과자로잇던 현익철(玄益哲)씨는 지난 사월삼일에 아모리유업시 또는불법으로 일본령관에게데포되여 자긔고향인 평안북도 박천(平北博川)까지압송되엿다함은 이미두두히 보도한바어니와 그는그후 중국인일본인 조선인가진각색사람의손을거처 감옥으로 류치장으로

이리저리 구을고끌려서 마츰내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까지끌려왓다가 지난십륙일에 무죄의몸이되여 방면이되얏다 는데 이제 그가이역삼사천리밧게서 포박의 몸이되여 이리저리밟피고 커리끌려 다니게된 전후전말을듯건대 실로약자의 속힘ᄉ업는설음 피정복자의 곳업는비애를 늣길수잇고엿볼수 가잇다 지난사월 삼일밤 열한시경이다 찬람바

부러오든 만주벌판도따뜻한봄바람에품겨 고요히 잠든그때이엿다 흥경청안 한구석방에서 권긔현익철씨는 몃동지로더부러 조선사람으로서 한때도이즐수업는생각 그이야기를하고잇던그때에 돌연히 밧그로부터 정복한륙명의 중국순경(巡警)이손에 긴총을들고 잔득 방안사람들을견우면서드러오고 그뒤로는 중복입는사람삼인이 손에사창(射槍)을들고 드러와서『우리는 본현경찰서에서왓는데 이가운데 현익철이가누구인가』함으로 현씨는안심하고(본현경찰서에서 왓다고하기때문에)『내가현익철이오』대답하매 뒤에섯든 사복입은사람이 무에라고짓거림을따라 무지한순경은 불시에달려들어 수족을결박하더니

경찰서로 가자고하면서 끌고나오고 두놈은 그방안사람들을직혀서서 움직하면 죽인다고협박하고 수직을하게되니 현씨는꼼짝할수업시 그만포로가되엿다 알고보니 뒤에섯든중국인세사람은 모다거짓중국인 이엿다 둘은일본사람이오 하나는조선사람이엿다 그곳경찰서는 간데업고 따로새경찰서가 나타나게되니 그것은곳일본인이 흥화현(通化縣)에서매수하여가지고온

중국순경 파견대이십여명으로조직된 사긔경찰서(詐欺警署)이엿다 그래서그서의 서장겸수임겸 전권대감은 모일본인 경부보(警部補) 이엿다 새벽세시경쳐닭소리가울려나오는그때에 포로인현씨는 다시복개마차(覆蓋馬車)의몸이되여사일커넉에는 이미흥경성을격한삼사백리지뎜에잇는조고마한청에도착하엿다현씨를

불법데포 하여가는마차가죽을힘을 다하야다라날때에압흐로부터십여인의중국경관이 길을막고서『당신네가 흥경현으로부터 오는일본인일행인가』고무럿다 엇잿던지 흥경현관내만버서나려고 경신업시 달려오던그들도마츰내『그럿슴니다』라고대답하지안흘수업게되엿스니 이것은 흥경현지사가 일본인의 소위를듯고죽시그곳

경찰서에 뎐화를한때문이다 이에여긔서 현씨는무사히 흥경청으로 도라가게되엿다 그러나다리고가든일본인일행은여러가지간교한핑계로시간을끄을다가 그날밤에다시 마차에채직을더하야 도망을치게되엿다 이리하야현씨는아조법률에호소할수업는몸이되여 무순(撫順)영을밟게되엿다 그곳은일본인의세력권내의 현디이엿다

다시봉텬 령사관(奉天領事館) 감옥에수감되엿다가닷새후에 안동현령사관류치장(留置場) 속의몸이되엿섯다 웬일인지정신업시 끄을려다닐수 밧게업는현씨는그이튼날아츰에다시 압록강털교(鴨綠江鐵橋)를건너신의주(新義州)류치장으로또차저오게되엿다 또그이튼날 석양이다자긔고향인박천(博川)까지끄을려갓다그에게

살과피를 주든고향은몹시도랭정하엿것다 오죽 류치장방한칸을그에게주엇슬뿐이엿다 그를잡어온 박천경찰서에는 살긔가 도는일면에 경관들의얼골에는모다희색이만면하엿다마티 도라갓던할아버지를보고반기는듯한누엇이가득찻첫다(계속)

苦楚 橫暴 ㊀ 蹂躪 憤恨

和順郡에 鐵棒强盜

범인은차차 잡히는중이다

전남화순군(全南和順郡)도림면 구례리 일백십삼번디(道林面求禮里)데인숙 영업하는윤덕수(尹德秀)의집에는 지난사월칠일오전이 강도단이드러와서 권긔윤덕수외 긔숙하든손 쪽몽에게렬봉으로 협박하야 각각그들의 허리띄(腰帶)로 결박하여노코 현금압 십삼원오십전과 물품약 팔십원가량을 강탈 도주한사실이 잇섯다는데 그급보를접한 소할화순경찰서(和順警察署)에서는 사법주임손경수(孫京洙)씨와평릉순사 멋명을 즉시현장에 출장하야 범인데포에활동한결과 지난칠일에 보성군미력면도개리 특데 팔십륙번디(寶城郡彌力面道開里)에사는 데공업(大工業)하는 사천고도(土千高道)일명 박사천(一名方泗川)(주팔)이란자는은근히 형데을 감추어가지고 보성읍내잔구하야있는중 형사윤두운(刑事尹斗云)의손에데어 즉시화순서로인치하야 엄중취됴를 마치고지난 십칠일에 광주검사국(光州檢事局)으로 넘기엇스며 하야 도주한협의 범인 또한명의런두자로 보성군미력면 도개리(彌力面道開里)、사는 리정섭(李正燮)이란자를 계속데포하야 엄중취됴중 이라는데 그자는 아즉도자백을 하지안흐며위선 강도사건취됴중에 두건의 절도(窃盜)한사실이 발각되엿다하며 일본에건너간 련두자에게도 형검을밟아 엄탐중이라더라(화순)

横暴한貸金業者

연명하라고사가는쌀을 길에서돌연히빼아서가

검은구름이 하늘을덥고 구진비를재촉하든 지난십구일오후 열시경에 황해도재령읍내(黃海道載寧邑內)일신리경찰관파출소(日新里派出所)에는 나히가오십가량이나 되야보히는 남자한명이와서 눈물을뿌리며 호소하는데 그자세한 내용을 들은즉 그비극의 주인공은 황해도신천군 노월면 굴산리(信川郡蘆月面屈山里)에거주하는조병훈(趙炳勳)이란

사람으로 본래빈곤한자로서 네명의식구가 근근히 지내든터인데 설상에가상으로 그의처가 수월전에세상을 하직하엿슴으로 어린아이두녕을 다리고동서에 개걸하야비참한 생활을계속하든터인데 지나간 오월십구일은 재녕장날임으로 수원의금권을 작만하야 가지고 약간의량식을 사가지고 가든길에

재녕읍내 국화리(載寧邑菊化里)에잇는김영호(金永浩)라는자가 돌연하야 자긔가수년전에 대부하엿든채권(債權)이 이원이잇다고조병훈의사가든량식을 강제로빼아슴으로 할수업시 눈물을먹음고 파출소로가서호소한것이라는데 그의 사정을드른 경관은 즉시김영호라는자를 호출하야 일상의엄중한설유로 조병훈에게 량식을돌려보내엿는데 이말을드른 일반은권긔김영호의포악무도함을비난한다더라(재녕)

모히密賣檢擧

줄포항에서

전북줄포항(全北茁浦港)에서는 『모루히네』를밀매하는자가칠팔명이나잇서부랑자의피를빨든바 경찰서에서 항상주목하든중 마츰내 다음과가티 검거하엿다하며 아즉삼사명의 남은자도 원간검거하리라는데일반은통쾌히여긴다더라(줄포)

金龍善 金權三은累犯者로서一[illegible]

[illegible]은檢事局에

朴浩根、吳洪祚劉金各百圓式

孕胎婦女를殴打

고기갑달니고독촉한다고 구타하야하혈까지되얏다고

衡平社中央總部에서憤慨

지난칠일 오후여섯시경에 충북진천읍내리(忠北鎭川邑內里)에사는림주력(林周力)과 류수복(柳壽福)두사람이 읍내장터어느술집에서 한동리에사는 형평사원(衡平社員)리무쇠(李武釗)의안해김순남(金順男)(三?)을함부로란타하야 중상한일이 잇섯다는데 그리유는김순남이가 권긔림수력과 류수복두사람에게 얼마못되는 고기갑을 바들것이잇섯든바 그날은 마츰 권긔두사람이술집에잇슴을 보고 다소조치못한언사로 고기갑을 달라고한 죄밧게업는데 림수력과

류수복은 쏘차나오면서 「이년에뎡년이 돈을밧어도분수가잇지안흐냐」고 욕설을하며 뺨을 함부로따리고 발길로허리를 찻다는데 김순남은허리를 쓰지못하게 되엇슬뿐만 아니라 그녀자는잉태 중임으로 아래로 피까지 쏘닷다는바 이사건에대하야 당디 형평사원들은 진단을내여고소를 데긔하려고하엿스나 당디모의사는무슨내막이잇는지

진단서를 내줄만한상처가업다고 진단을거절함으로 더욱분함을 참지못하야 사건의진말을 형평중앙총본부로 통지하야지난십이일에 총본부상무집행위원장지필(張志弼)씨가나려와서 사실을 됴사한후에 권긔가해자두사람은 김순남을 백뎡이란멸시로 인권을유린하얏슬뿐 아니라잉태중인녀자에게그가티무도한폭행을한것을묵과할수

업슴으로 일변의사의진단을마러 가지고당디 경찰서에데출하얏스되 동서장이 역시무슨의미인지참는것이조라는것으로권고하고취수치안흠으로할수업시 중지중에잇스나 그사건은그디방당국에서수리치안는다한다도형평사총본부에서는그냥묵과치못하겟다 고한다더라(청주)

深夜에强盜와格鬪

강도는칼을바리고도망

지난십오일밤열두시경에경남동래군일광면이천리(慶南東萊郡日光面伊川里)에사는최세구(崔世龜)(?)씨집에 강도두명이들어와서 권긔 최세구씨를 결박하고 그의처김씨를 이불을 씨운후에 방안을 수색하든것을 엽방에서자든그의장남진현(三二)씨가알고 초당에누어자는 장정(壯丁)들과협력하야 흉긔가진두명의강도를 데포코저 하엿스나 결국 잡지는못하고 일허버렷다는데 그두명의강도는 약일개월전에 권긔 최씨의집에 와서돈을과갓다하며 그날은 형세가매우위급하얏든지 칼이일쳑되는 칼한자루와 헌셔츠와 켜고리를 써러트리고 월성도주하엿는바 당디일광주재소(日光駐在所)에서는 범인을데포코저활동중인데울산방면(蔚山方面)으로 간형적이잇다더라(긔장)

寶城에새金鑛

성적이매우조타고

보성군(寶城郡)은곳곳마다산을파도금이요 물을파도 금이라는 별명이 잇는중유독히복내면(福內面)은덕사가오렌광산디(鑛地)로서우리조선사람의 성패득실도만혓거니와 일본사람의 ᄎ명으로 큰성공을한 자가만흔중금춘에보성군미력면송림리박례규(彌力面松林里朴禮規)씨가 복내면금방석이라는산성(山城)산과로래(露來)등에새로이광맥(鑛脈)을발견하야총독부허가를 어더방금채굴중인데 성적이 조라하며 각처광부들이 구름가티 모아드러 복내일대는 더욱번창하다더라(보성)

會議中에卒倒

도지사회의에서 럭식국서긔관이

도지사회의(道知事會議)에참석키위하야 삽룡일에 입경한부내남산뎡(南山町)포미려관(浦尾旅館)에숙박중인 군산탁식국서긔관(郡山拓殖局書記官)은이십일일의 회의중에별안간 그당석에서졸도하엿슴으로즉시려관으로가서정양중이라한다더라

金堤에 覆面强盜

술과안주까지 강탈하야갓다

김뎨군봉지면장신리(金堤郡鳳池面長新里)사백륙십이번디 려인숙업송락천(旅人宿業宋樂天洛)의집에는지난십칠일오전네시경에 흉긔를가진 복면강도두명이 돌입하야 현금 일원이십전과백목십여자(白木十餘尺)와개다리(狗脚) 하나와 술 다섯그릇을강탈도주하야 종적을감추엇다는데 이급보를들은 동지리주재소에서는 김뎨경찰서의 응원을어더각처에비상선을느리고범인을엄탐중이라 더라(김뎨)

少女慘死

복숙에엽혀저서 불상하게죽엇다

지난십일 오후한시경에 울산군두서면차리(蔚山郡斗西面次里) 김영우의셋재딸김말화(金末華)(一三)은누살된아우를엽고자긔집뒤에잇는십여척되는보둑(洑堰)우에서 놀다가불행히 거꾸로떠러지자 설상가상으로 수백근되는돌이 검허나리따려누참혀 중상된것을 집에업고와서 응급치료를하얏스나 세시간도못되야 절명하엿다는데엽힌 아이는친긔 김영우의 사녀일남의 귀독자인데 다행히생명에는 아모관계가업다더라(언양)

押送途中에 피신하야자살

지난달이십삼일오전십이시경에 경남울산군두동면봉계리(慶南蔚山郡斗東面鳳溪里)삼교곳(三橋峴)가에서 수십명군중이 모힌가온데서한가족으로조직된일대비극이연출되엿다는데그원인을듯건대두동면장(斗東面長)안상중(安相重)씨의집에서동구일밤에찰벼(糯稻)닷말을일허젓슴으로 권긔 안씨의친족을 위시하야

동리사람 들이 수색한결과 오십번디 김상안(金祥安)(四?)의집박아간(舂間)에서그찰벼가발견되매김상안의집에서 발명하엿으나 몰튼니오디방사람들까지라도그사람에게치의하지 아니하던터인데 김상안은 평소에 성질이 강직하고 재산도 상당한사람이나 권긔김상안과사이가 조치못한 박치수(朴致秀)의처리엇든가

순행하든 순사에게권긔 사실을고발하얏슴으로절도죄로 데포되야두동주재소(斗東駐在所)로가다가 긔긔한리유를 말하고자긔의집에다녀오겟다한후에 동일오전오시경에 권긔삼교못에싸저죽은것이라하며죽은 원인은 복잡하야 뎨삼자로서는 판단할수업스나 시톄는 울산경찰서서원과 공의가 검시한후 자살이분명함으로 곳매장케 하얏다더라(언양)

飼犬咬人

부내경성일보사급사(京城日報給仕) 오렬문(吳烈文)(一?)은이십일일오후네시경에 가회동(嘉會洞) 사번디 전남지사(全南知事)장헌식(張憲植) 씨집에심부름을갓던바돌연히그집에서먹이는개가달려들어 오른편다리를물어 상처를크게내엿슴으로 오렬문은 즉시부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엿는데그개는미친개인듯함으로경찰서에서는타살하리라더라

粟三升일코

굴머죽게된두식구

김천군 금릉면삼락동문긔봉(金泉郡金陵面三樂洞 文基奉)(七?)은본시 구차한살림에 서로의지하고 살아가든안해까지죽고 금년에여섯살된 어린아들 한명뿐을다리고 홀아비살림으로 자긔집에서십리나되는 김천에가서 집품을팔어 불상한부자 두목숨을그날그날 이어가는가련한 처디인데지난 이십일도 전일과가티김천으로 집품을팔러갈때에 어린아들의 등을어루만지며 눈물석긴밥도 밧갓헤서놀라고 달내이고 흑병이나서집품을 하도다도못할때는 어린아이들을 먹일야고주린배를 주리고 또주리면서 근근히모아둔 좁쌀석되를 밤에두고 밧문을잠그고 김천가서집품을팔고 점심을먹고자 집에도라오즉 엇더한도적놈이 밧문을부시고 좁쌀을가지가아 버린지라 문긔봉은 텬디가아득하야 불상한두목숨을 하늘도 미워한다하면서 엉엉울며 슯히우는광경은 목석이라도 참아보지 못하겟다더라(김천)

開城妓生試驗

입격되면예기로 락데되면작부다

개성경찰서(開城警察署)에서는 시내에서 기생영업하는 예기륙십여명에게 대하야 예기의기술시험을실행하겟다는데시험을시키는 리유는원래부터 개성기생들은 일주일에 한번식신톄검사를하여오든바인데기생일동은검사를 철폐하야달라는 요구가그전부터 잇섯슴으로 자격자、무자격자를 심사하기위하야 시험을보인다하며 시험을 시킨결과여러가지 기술에 합격이되면예기로 허가할것이오 만일시험에합격이 되지못하는경우에는 작부로권과가티인뎡한다는데개성기생들은이문데로인하야매우불안을늣기는중에잇다더라(개성)

少年窃盜激增

방범도교묘하다고

개성(開城)시내에는요사이십오륙세식된 소년절도가 날마다늘어간다는데 절도질하는 방법은 사람의이목을속이어가면서교묘히남의 물건을훔치거나 그러치안흐면 각처로도라다니다가주인업는틈을타서절취한다더라(개성)

朝鮮호텔自働車가 十歲少女를轢殺

작일밤아홉시오십분에

작일오후아홉시 오십분경에부내서소문뎡(西小門町)삼십이번디 천덕준(千德俊) 의셋재딸 음천(陰川)(一〇)은그의어머니와외조모와 형과 네식구가작반하야종로야시를구경하고자나와대한문(大漢門) 압명치생명 보험회사(明治生命保險會社)건축장압흘 지날때 조선호텔자동차에 치어 무참히 죽엇는데 현장에는선지피가 길바닥에 흥거니괴이엿고 이급보를접한 본뎡경찰서에는 원이출동하야 실디를 림검한후 시톄는 부근병원으로보내고 운뎐수는 취됴중이라더라

寡婦自殺未遂

녯회포가새로나서 운동구경을갓다가

경남통영항길야뎡매축디(慶南統營港吉野町埋築地)에잇는 세관선창(關稅船倉) 에서 지난십칠일 오후구시경에 엇던녀자하나가 세상을비관하야 슬피울다가 그만바다를에몸을던저 모든비애를 이저바리고자 하는순간에 마츰그곳을지나다가 그광경을본 통영항길야뎡 어귀(鋼崎)의집에 거주하는 송본애조와 상뎐환차랑(桑田歡次郞)이라는두일본사람에게 구조를 입은바되야 드듸여뜻을이루지못하고 그대로도라갓다는데 이제 그자세한사정을듯건대 이녀자의 원적은마산부서뎡리(馬山府西町里)에둔 박학임(朴鶴任)(?) 이라는과부로 현재통영항대화뎡(大和町)장재봉(張在鳳)의집에 류숙중인데 삼십육세에 홀로되야 슬하의 두남녀를맛고 여생을보[illegible]러니설상가상으로수년전에 그아들이 경북포항(慶北浦項)방면에 어업차로나갓다가목숨우에참사를당한바잇슴을새식을차저통영에와서지내든바마츰시월일오통영보통학교의대운동회가잇섯슴으로과그부도구경을갓다가아이들의뛰노는것을보고또한술잔이나 먹은김에 자긔아들의 생각과남편의 생각이다시나며 비관이생기여 그와가티자살하고자함이라더라(통영)

七星門下屍體 自殺인듯

피투성이된 옷이의문의초점

이십일오전칠곱시경에 부내 칠성문안 대신궁(大神宮) 압헤잇는 네길이나되는석벽(石壁) 아래서 남자의시톄하나를 동민이발견하고

평양경찰 서에보고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즉시현장에출동하야 검시한결과 전긔남자는 부내상수리(上需里) 이백륙십삼번디에사는조규남(趙奎南)(二?)으로서 조씨는일직숭실(崇實)중학교를졸업한후정창리회학당(梨花學堂)과 청개호수돈(好壽敦)녀학교의 교사로 잇섯스며 그후려관업도 하엿고근일에는 일뎡한직업이 업섯는데조씨는 원래술을만히 먹는바죽든날에도 자긔집에서 술을대취하도록 먹고집을 나갓는데죽은시톄를보면 머리에 비곳이나큰상처가나서

피를만히 쏘든까닭으로 여러곳에 피가만히 고여잇스며 이상한것은 옷을전부 버섯는데 그버슨옷은 피투성이된채로 이곳저곳에 널려잇는것을보면 타살(他殺)의 혐의가 업지아니하나 지갑안에 돈오십원이 그대로잇는것을보면 자살、타살을판명키어려울수업는모양인데 아마 술이너무취하야 몽롱한정신으로 이리저리도라다니다가 전긔 석벽우

市井雜事

◇無端出家乞食 경긔도김포군월곳면군하리(金浦郡月串面郡下里)이백오번디 리모(李某)의장남박인용(朴仁用)(二?)은지난사월삼십일에무단히집을떠나간후로 사면으로 수색하엿스나 종적이 묘연하던바 얼마전에경성안에서걸식(乞食)을하고도라다닌다는 소문을듯고 그의가족으로부터 시내각서에 수색원을 데출하엿다고

◇空家에乞人屍 지난십이일평원군한천면인의리한용우(平原郡漢川面仁義里韓用雨) 소유인 빈이집에서본적(本籍)이미상한 삼십칠팔세 가량되는 걸인(乞人) 한명이 죽엇는데십삼일오전일곱시경에 발견되야 소관서에서검시(檢屍)한결과만성간장염(肝臟炎)에걸려 서취참중에죽은것이판명되야 공동묘디에 매장하엿다고(평양)

휘파람

▲만주(滿洲)에잇는 일본인거류민들은전만주거류민대회를개최하고 봉텬에잇는 특무긔관(特務機關) 국디소장(菊池少將)은매국노이니 무엇이니하고 야단법석이난모양 ▲그내용인즉 작년봉직(奉直)전쟁때에 일본인의용군(義勇軍)결사대칠십명이장작림(張作霖)에게충성을다하다가 도리여몰리여여러명이총살을당한까닭에 문데가크게 되얏는데 ▲국지소장은 장작림에게 알랑알랑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장작림은표면은친일이나리면은배일을함에불구하고 국지의 태도가 전긔와갓다는것이 더욱 문데라한다 ▲국지는 장작림에게알랑알랑할지언정 장작림이야 제속이따로잇슬것은 뎡한일이다 이러나 저러나 매국노란말은좀을상한말인걸